



오늘과 내일

도시와 농촌의 공존 섭리

신 동 우

군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막무가내로 너는 오지랖을 넓혀갔지. 서울 주변 사방팔방으로 신도시가 건설되고 하루가 다르게 나는 너의 문어발식 뭉개기 전술에 뒷걸음질 쳤어. 그뿐인가? 지방의 또 다른 너의 분신들도 물감처럼 농지로 번져갔지. 농지는 자본으로 환치되고 환치된 자본은 다시 도시로 들어갔지. 나를 살릴 경자유전의 원칙은 너의 도도한 확장세로 무너졌고.

가장 안타까운 일은 전통적인 근교농업의 토대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그나마 너와 나에게 주어진 공존의 가치, 공존의 기회도 매몰되어 버렸어. 너의 공간은 억명으로 가면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지. 군중들이 숨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어. 그럴수록 나는 고통스러웠고 아위어갔어. 농산물은 바다 건너에서 더 세계 들어왔지. 더는 버티기 힘들었어.

나로 인해 국민들이 누리는 식량 안보, 홍수조절, 경관보전 등 공익적 소산을 너에게 호소하는 것조차 소심해지더라고. 다른 나라들과 다자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누적될 때 누군가 그랬어. “이익의 공유가 필요해”. 나를 위한 안전장치를 위한 발언이었다고 이해했어. 하지만 곧바로 못매를 맞았어. 그만큼 너와 나의 공존의 해법으로 더 차원 높은 방정식이 요구되었을 뿐.

그래도 나는 늘 공존을 생각했어.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있을 것이라는 혹은 있어야 한다는 대의에 천착했지. 왜냐하면 너와 내가 공존을 백안시하는 사이 너와 나의 문제는 서로의 표피 아래로 굽아 들어갔어. 먹거리를 보는 생명 철학이 열려졌고 해마다 늘어나는

빈집처럼 성장 중심의 정책은 너와 나 사이에 심각한 구멍을 내버렸어. 서로 알아서 잘 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30년이 지나지 않아 둘은 다른 양상으로 내상을 입은 거지.

사람은 사람대로,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지금과 같은 공존의 방식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 사람은 과도하게 몰려 살고 먹거리는 공정한 분배 틀에서 어긋났고 물류는 금융을 지렛대로

지역 과소화는 순환의 오류

해법은 공존 위한 철학 필요

특정 경로를 강제하는 모양새로 나타났어. 오염, 수탈, 불균형, 과속, 격차, 비대칭..... 나와 나의 공존을 위한 철학과 공멸하지 않는 실천을 매개로 단단히 함종하고 꺼리낌 없이 연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거야.

나와 내 안에서 함종하고 너와 내가 연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 조율해야 하고 너와 나의 다양한 경로들을 복원해야겠지. 이를테면 지금까지 각자도생이었다면 이제는 공존, 나아가 상생의 촉판을 반추하고 예정하는 노력과 인내가 절실했어. 더욱이 네가 군림하고 내가 너에게 매이는 것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 너와의 연환에 있어 순환의 단초는 단연 먹거리이지 싶어. 지역 순환 그리고 물류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그것이 호모사피엔스의 지속가능성

을 여는 첫문의 열쇠라고 생각해.

지역의 과소화는 순환의 오류가 분명해. 그러니 네가 사람과 먹거리, 물류를 독점하는 한 나는 소화불량으로 늘 어려워. 과소화로 오는 피로도는 극점을 향하고 있어. 사람이 없어 생산 현장이 멈추고 먹거리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물류가 왜곡된다면 그런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힘이 들어. 나와 가까운 도시로 사람과 먹거리와 물류가 물처럼 환류되는 토대부터 만들자구. 그것이 공존의 바탕을 제대로 쌓는 길이야. 지금 너의 대문을 열어줘. 기왕이면 활짝 말아야.

지산지소, 신토불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야. 공존의 섭리를 말하고 싶어. 생명을 위한 경의, 생명과 먹거리의 본원적 가치, 사람을 향한 도리, 느슨했던 자들 간의 건강한 연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담론들이지. 그 안으로 들어오길 갈망해 왔어. 수학적 담론에서 인문학적 담론으로 넘어와야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관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었을까?” 나는 지금의 문명보다 지나온 문명의 가속도가 만들어낸 허상들을 보자면 다시 편두통이 엄습해. 속도가 가져온 시간과 공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너와 나의 격차는 속도를 늦추고 선순환의 재구조화로 줄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텅빈 늦가을 들판을 보며 나는 너에게 하소연한다. 그리고 네가 주는 편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향해 나는 절규한다. “내가 소멸하면 너는... 팬데믹으로 닫혔던 국경을 떠올려 봐”